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개강미사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03.11.19:00~21:00	비고	
활동목적	ex) : 1. 학기의 마무리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앙의 의미를 되새긴다. 2.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적 일치를 이루고 영적 결속을 다진다.		
활동내용 및 소감	아뉴스데이 동아리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한 학기의 여정을 첫발을 내딛고자 정기 개강미사를 봉헌하였다. 경희대학교 담당 신부님의 주례로 진행된 이번 미사에는 구성원 전원이 모여 신앙 안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강미사는 다가오는 한 학기 동안 펼쳐질 다양한 활동과 만남, 그리고 각자의 학업과 일상 앞 나누어질 순간들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회원들은 미사를 통해 새 학기를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을 나누는 동시에,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는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다과 모임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방학 동안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기 동아리의 주요 활동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서로의 목표와 바람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다질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하였다. 이번 개강미사를 통해 아뉴스데이는 전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출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아뉴스데이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구성원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혜윤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견진성사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05.23.14:00~18:00	비고	
활동목적	ex) : 1. 학기의 마무리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앙의 의미를 되새긴다. 2.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적 일치를 이루고 영적 결속을 다진다.		
활동내용 및 소감	아뉴스데이는 회원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체 견진성사를 봉헌하였다. 이번 견진성사는 수가대연 회원들 중 아직 견진을 받지 않은 청년들이 뜻을 모아 함께 견진 교리 수업을 이수한 후, 신앙의 어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견진성사에 앞서 회원들은 수주간 진행된 견진 교리 과정을 정성껏 이수하였다.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도 교리에 성실히 참여하며 세례 때 받은 은총을 되새겼고, 성령의 칠은과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익히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성사 당일, 거룩한 전례 속에서 회원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 견진성사를 통해 회원들은 하느님의 성령을 가득히 모시고, 교회의 참된 증인이자 삶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적 어른'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미사 후에는 함께 교리를 이수하고 성사를 받은 구성원들이 모여 축하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배움과 기도의 시간을 거치며 다져온 신뢰 속에서 신앙 안에서의 유대감을 깊이 느꼈으며, 수가대연 및 아뉴스데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단체 견진성사를 통해 아뉴스데이는 구성원 각자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성숙한 공동체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아뉴스데이는 회원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연합동아리로 나아갈 것이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혜윤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정기모임 : 성경 나눔(렉시오 디비나)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나눔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03.25, 05.06, 05.13	비고	
활동목적	1.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나눔을 통해 신앙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영적 기반을 다진다. 2. 성경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나눔을 통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방향을 모색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수원 나자렛집 지하 1층 활동내용: 아뉴스데이는 매주 수원 나자렛집에서 찬양과 성서 나눔(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나눔으로 구성된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다. 짧은 찬양으로 마음을 모은 뒤,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읽기·묵상·기도·실천의 단계를 따라 말씀을 깊이 되새겼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 루카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였다. 이어지는 나눔 시간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여정의 일환으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함께 읽었다. 이 문헌은 2018년 젊은이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젊은이들과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보내신 총 아홉 장 299항의 문서이다. 매주 한 챕터씩 읽고 각자 마음에 남은 항목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회 주제 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다. 활동 전후로는 다과를 나누며 공동체의 친목을 다졌다. 소감: 매주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신앙을 나누는 이 시간은 분주한 학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이 되었다. 루카 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되물게 하였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는 그 물음이 오늘의 청년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었다. 특히 "젊다는 것은 하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문장을 통해, 지금 이 시기가 연젠가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임을 새롭게 깨달았다. 2027년 서울 대회를 향한 여정 안에서 매주의 작은 나눔이 곧 그 준비임을 확인하며, 아뉴스데이는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_____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동아리 박람회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03.11.-03.12	비고	
활동목적	1. 동아리 홍보를 통해 아뉴스데이가 가톨릭 신앙 공동체임을 학내에 알리고, 수원교구와 수가대연으로 이어지는 연합 동아리의 정체성을 소개한다. 2. 슈링클스 만들기 체험과 간식 나눔을 매개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청년 신앙 공동체를 알리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 경희대학교 대운동장 활동내용: 아뉴스데이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동아리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부스를 찾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슈링클스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였으며, 십자가와 성모님 등 가톨릭 관련 문양 도안을 준비해 두는 한편, 원하는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아뉴스데이가 가톨릭 동아리라는 점과, 수원교구 산하 수원가톨릭대학생연합회(수가대연) 소속으로 수원 지역 대학교들이 함께하는 연합 동아리라는 점을 함께 소개하였다. 아울러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며 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정기 모임 안내를 전하였다. 소감: 이번 박람회는 아뉴스데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동아리를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슈링클스라는 친근한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부스를 찾아 주었다. 이틀 동안 여러 학생들과 만나며 동아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학교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아뉴스데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야구관람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 04. 28	비고	
활동목적	1.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문화활동을 즐기며 친교를 나누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함. 2. 함께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수원 KT 위즈 파크 성당 공동체 야구 관람 활동은 구성원들이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친교를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 활동이다. 평소 신앙 활동과 봉사 중심으로 만나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여가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활동 당일에는 경기 시작 전 모두 함께 모여 일정과 관람 시 유의사항을 공유한 뒤 경기장으로 이동하였다. 경기장에서는 함께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관람하며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진행되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응원가를 함께 부르고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쉬는 시간에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부원들 간의 활발한 대화와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야구를 처음 접하는 구성원들에게는 규칙과 선수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응원 문화를 함께 알려주며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기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다. 활동 내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야구 관람 활동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함께 응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은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공동체 활동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바쁜 학업과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었고, 함께 만들어 간 추억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혜윤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회장단 워크숍		
동아리 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아뉴스데이
활동시간	2026. 06. 25 ~ 06. 26	비고	
활동목적	1. 회장단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체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고자 함. 2. 한 학기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활동내용 및 소감	장소: 에버마루 회장단 워크숍은 아뉴스데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이 함께 모여 한 학기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단순히 업무를 분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한 학기 동안 진행된 미사, 친교 활동, 신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잘 이루어진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함께 정리하였다. 각 부서에서 맡았던 역할과 운영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을 이어갔고,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장단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며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행사 기획 방법, 부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신입 부원 적응 프로그램, 홍보 방식, 역할 분담 등 공동체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기보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행사와 신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였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회장단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장단 워크숍을 통해 회장단은 공동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소통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으며, 공동체를 위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회장단 간의 협력과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혜윤 (인)